

# 중세 유럽 문장의 도형 형상 연구\*

김 연 순\*\*

- I. 서론
- II. 중세 문장의 기원과 분류
- III. 도형 형상과 색의 상호결정성
- IV. 도형 형상의 특징과 그 의미
- V. 결론

## • 국문초록

중세 유럽 문화에서 문장은 전장에서는 기사들의 인식 표시였고, 전장 이외의 영역에서는 인정과 권위를 위한 상징물로서 주로 사용자의 서열을 표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사라는 신분이 해체되면서 문장은 민간 생활에 파고들었고 사회적 차별화를 드러내기 보다는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개인의 경우 가족을 비롯한 개인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상징 문양을 통해 스포츠 영역을 비롯해서 다양한 조직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변형을 이루고 있다.

문장은 흔히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눈다. 이른바 선과 면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도형 형상과, 사람을 비롯한 자연물과 사물을 포괄하는 일반 형상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문장은 방패의 표면에 도형이나 일반 형상으로 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099)

\*\*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강사

현된 것 일체를 뜻한다. 그러나 문장은 방패라는 공간적 제한성으로 인해 공간보다는 표시의 의미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엄격한 일정한 규칙에 따랐다. 이러한 문장은 근대 이후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로 오늘날 중세 문화를 재생산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풍부한 스토리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문화산업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문장의 범주들 중에 도형 형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도형 형상이 방패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문장 연구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형 형상은 단지 문장학의 규칙 내에서 설명될 뿐이며 개별 논문을 통한 집중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그 의미 추적과 분석 또한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도형 형상을 고찰함으로써 소외된 연구의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문장의 기원과 발전, 문장의 분류, 도형 형상의 선분할과 색의 관계 및 도형 형상의 특징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 주제어

문장학, 문장, 일반 형상, 도형 형상, 기하학적 형상 문장, 색

## I. 서론

문장은 유럽에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던 시대에 정보를 시각화 하여 생활문화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문장은 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중세 문화의 작은 부분으로 간주될 뿐이다. 그런 까닭에 문장 연구는 역사학에서 일종의 보조학문(Hilfswissenschaft)으로 자리매김 되어 학자들보다는 일반 연구가에 의해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논의되었다.<sup>1)</sup> 이것은 주요 문장학 연구에서 거론되는 저자들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문장 연구는 19세기 초 낭만주의와 그 후 독일전쟁의 승리로 호경기를 맞아 번성했던 창업시대(Gründerzeit)의 결과로서 중세에 관한 시대적 관심과 중세 문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원전 출처에 문장을 조사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sup>2)</sup> 그 성과를 얻기 시작했다. 우선 문장 연구에서 최초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는 저술로는 지방정치가이자 사서였던 제일러(Gustav A. Seyler)의 『문장학의 역사 Geschichte der Heraldik』를 꼽을 수 있다. 1885년에 출간된 이 역사서는 “방대하고 기념비적인 저서(ein umfassendes, fast monumentales Werk)”<sup>3)</sup>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기서 저자는 문장을 “중세 문화사적 현상(Erscheinung der Culturgeschichte des Mittelalters)”<sup>4)</sup>으로 간주하였고 이것의 전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문장에 관해 기술된 문학작품들이나 저술의 부분들을 세세하게 제시하였다. 제일러가 종종 인용하였던 『문장 상징론: 문장 의미에 관하여(Zur Wappen- Symbolik: über die Bedeutung der Herold-Stücke)』는 독일 고대연구가이자 정치가였던 호베르텐(Hermann von

1) Vgl. Thorsten Huthwelker, *Die Darstellung des Rangs in Wappen und Wappenrollen des späten Mittelalters*, Ostfildern: Thorbecke Verlag 2013, p. 12.

2) Václav v. Filip, *Einführung in die Heraldik*, Stuttgart: Steiner, 2000, p. 17.

3) Ibid.

4) Gustav A. Seyler, *Geschichte der Heraldik*, Nürnberg 1885, p. III.

Hoverden)에 의해 1870년 뮌헨에서 출간되었다.<sup>5)</sup> 호베르덴은 도형 형상의 근원을 전혀 알 수 없다고 토로하면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요구되는 해석의 가능성은 그 안에 담긴 상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상상력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sup>6)</sup> 해석가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가에 따라 문장의 해석도 풍부해진다는 것이다.

20세기 들어서자 문장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더불어 예술적 관점에서 주목받으면서 에른스트 알프레드 슈투켈베르크(Ernst Alfred Stuckelberg)의 『예술과 공예에서의 문장(Das Wappen in Kunst und Gewerbe)』(1901)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여기서 문장이 단지 문장예술품을 되살리려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애호가나 예술가 및 수공업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역사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관계를 살펴야 그 존재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sup>7)</sup> 이런 의미에서 후에 역사학자 바크라프 포크 필립(Václav Volk Filip)은 “문장학은 하나의 학문인 동시에 하나의 예술이다. 그러기에 종종 ‘문장학’ 그리고 ‘문장 예술’로 언급된다.”<sup>8)</sup>고 하였다. 문장예술가이면서 기장학자였던 오토프리트 노이베커(Ottfried Neubecker)는 봉건시대의 역사와 사회사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문장에 관한 그림을 세세히 제시하며 정확성을 기했던 『문장학과 문장 - 기원, 의미, 가치(Heraldik. Ihr Ursprung, Sinn und Wert)』를 1977년에 출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세기 중후반에 뉴미디어의 발달로 중세 문장이 현대 문화에서 새롭게 이미지화 되면서 문장은 관심을 받게 되고 상징으로 재발견되었

5) Hermann von Hoverden, *Zur Wappen-Symbolik: über die Bedeutung der Herold-Stücke*, München, 1870.

6) Vgl. Hermann von Hoverden, *Wappen-Symbolik. Über die Bedeutung der Herold-Stücke. In der Sitzung des historischen Vereins von und für Oberbazern*, München 1870, p. 4.

7) Vgl. Ernst Alfred Stuckelberg, *Das Wappen in Kunst und Gewerbe*, Zürich 1901, p. V~VII.

8) Václav v. Filip, op. cit., p. 11.

다. 이런 분위기에서 1990년대 이래로 문장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우선 바클라프 포크 필립은 2000년에 『문장학의 소개(Einführung in die Heraldik)』를 출간하였다. 그는 중세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문장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기 때문에 문장에 흥미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문장의 생성, 전개 및 규칙을 개관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문장학을 기술하고자 했다.<sup>9)</sup> 이어서 비엔나 대학의 중세사 교수인 게오르크 샤이벨라이터(Georg Scheibelreiter)는 『문장학(Heraldik)』(2006)을 저술하면서 특히 문장에 나타나는 동물상징의 의미 내지 이름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학술서적임에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기술하여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렇듯 꾸준히 이어지는 문장 연구에서 본 논문은 문장의 두 범주 - 도형 형상과 일반 형상 - 중에 도형 형상 문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도형 형상 문장이 방패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문장 형성을 위해 기본 틀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장 연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형 형상은 흔히 문장학의 규칙 내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개별 논문에서 도형 형상에 집중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그로 인해 그 의미 추적 또한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도형 형상을 고찰함으로써 소외된 연구의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문장의 기원과 발전, 문장의 분류, 도형 형상의 선분할과 색의 관계 및 도형 형상의 특징과 그 의미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

9) Václav v. Filip, op. cit., p. 9.

## II. 중세 문장의 기원과 분류

문장의 기원에 관한 역사는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문장은 이미 고대에도 사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 모두 많은 민족과 여러 시대에서 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특정한 규칙이나 특별한 의식 없이 오랜 관습대로 표식이 무작위적으로 그려졌던 시대의 문장에는 중세 이전에, 말하자면 문장이 형성되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미 갑옷과 투구에 선을 비롯한 천지만물이 그려졌던 것이다. 중세 문장 이전에 있었던 표식으로는 군사적인 인식 표식으로서 군기의 엠블렘, 인장, 방패 등이 제시될 수 있다.<sup>11)</sup> 방패로 말하자면 헤파이스토스에 의해 만들어진 아킬레우스의 방패가 그 스케일과 화려함에 있어서 유명하다.

“그는 먼저 크고 튼튼한 방패를 만들었는데 사방에 교묘한 장식을 새겨 넣고 가장자리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세 겹의 테를 두르고 은으로 된 뿔뿔을 달았다. 방패 자체는 다섯 겹인데 그는 그 안에 훌륭한 솜씨로 여러 가지 교묘한 형상들을 만들었다.

거기에 그는 대지와 하늘과 바다와 지칠 줄 모르는 태양과 만월(滿月)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늘을 장식하는 온갖 별들을, 플레이아데스와 휘아데스와 오리온의 힘과 사람들이 짐수레라고도 부르는 큰곰을 만들었다. 큰곰은 같은 자리를 돌며 오리온을 지켜보는데 이 별만이 오케아노스의 목욕에 참가하지 않는다.”<sup>12)</sup>

게르만족의 기원과 주거 및 생활문화를 기술한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서도 게르만족의 방패가 제시된다. “여봐란 듯이 무구를 장식하지는

10) Friedrich von Wyss, op. cit., pp. 5~8 참조.

11) Maxine, *Das Wappen als Medium adliger Repräsentation im Hoch- und Spätmittelalter*, 2014. (<https://geschichte-wissen.de/blog/heraldik-wappen-adel/>, 2018.07.01.).

12) 호메로스 저, 천병희 역, 『일리아스』, 도서출판 숲, 2017, 548쪽.

않지만, 방패에만은 최고급 물감을 칠한다.”<sup>13)</sup>란 기록을 보면 게르만족의 방패 의미가 읽혀진다. 이외도 많은 문헌들에서 문장 이전 시대의 예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규칙 없이 임의적으로 그려졌던 이전 시대의 문장을 “전문장 시대(die protoheraldische Zeit)”<sup>14)</sup>의 것으로 간주하고 중세 문장과 구별 지었다. 태고 이래로 방패에 임의적인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변형불가와 상속(Stabilität und Vererblichkeit)”<sup>15)</sup>에 근거해서 비로소 문장 형상으로 가치를 얻게 되었다. 형상들의 ‘변형불가와 상속’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은 “일정한 규칙성과 배치의 독창성 (einerseits eine gewisse Regelmässigkeit, sodann die Originalität der Anordnung)”<sup>16)</sup>이었다.

12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독일어 ‘문장(‘Wappen’)은 고지독일어 ‘wapen’에서 유래하고, ‘wapen’은 무기를 뜻하는 ‘Waffe’의 고지독일어 ‘wafan’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16세기에 와서야 두 낱말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다.<sup>17)</sup> 여기서 드러나듯이 사용 초기에 문장은 한편으로는 전쟁기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패 위에 그려진 식별 표시였다. 이런 문장은 중세 봉건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며, 그 한 예는 갑옷과 무릎철갑보호대 등 기사들의 무장이 표현되어 있는 바이외 테피스트리(Teppich von Bayeux)이다. 바이외 테피스트리에 표현되어 있는 기사들의 방패는 대부분 기하학적인 것으로서 테두리가 둘러쳐져 있고, 오늘날 도형 형상에 속하는 선분할과 함께 십자형, 원형, 가로선 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때로는 ‘용’도 그려져 있다. 마상시합이 이미 11세기에 출현하고, 11세기 말엽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12세

13) 타키투스 저, 천병희 역, 『게르마니아』, 도서출판 숲, 2017, 34쪽.

14) Thorsten Huthwelker, op. cit. p. 23.

15) Gustav A. Seyler, op. cit., p. 75.

16) Ibid.

17) Friedrich Kluge, *E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arb. von Elmar Seebold, Berlin: N.Y., 1999, p. 875.

기와 13세기에 중세 문화가 전성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사단이 등장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용된 문장이 양식화되었다. 따라서 문장의 등장은 12세기 중엽으로 판단되고 있다.<sup>19)</sup>



〈그림 1〉 바이외 태피스트리의 일부본<sup>18)</sup>

특히 12세기 중엽이래로 증가했던 기사들은 이전과 달리 방패에 다양한 형상들을 부가적으로 장식하여 문장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13세기에는 기하학적인 형상이 유행되기도 했다.<sup>20)</sup> 문장의 양식화 과정에서 보면, 제일러는 문장 형태들을 기존의 인장과 방패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문장과 달리 “문장내의 새로운 형식(Neue Form im Wappenwesen)”으로 설명하였다.<sup>21)</sup>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세의 문장 기원은 십자군의 전장에서 적군과 아군의 식별 표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정한 규칙성과 배치의 독창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장식을 임의적으로 사용했던 관습이 약화되고, 임의적 장식이 변형하지 않는 견고한 형태로 상속되면서 다양한 모피형이 “문장형상들로서의 가치(der Werth als Wappenbilder)”<sup>22)</sup>을 얻었으며, 이로써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른 여타의 요인들

18) 바이외 태피스트리는 1066년 하이스팅스(Hastings) 전장에서 노르망디의 영국 정복을 70미터 길이의 자수로 58개의 장면을 세세하게 표현하였으며 11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그려진 기사들과 그들이 들고 있는 방패는 문장학 원칙을 따르지 않아 그것은 무관하게 보이며 등장인물들도 특정 인물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적으로 그려졌을 뿐이다. Teppich von Bayeux, From Wikipedia, 2017년 10월 3일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ormans\\_Bayeux.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ormans_Bayeux.jpg)2017.10..03.) 참조.

19) Thorsten Huthwelker, op. cit., p. 23; Václav v. Filip, op. cit., pp. 8~10 참조.

20) Gustav A. Seyler, op. cit., p. 79.

21) Ibid., p. 75.

22) Ibid.

이 있더라도 문장이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적군과 아군의 식별 표식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학계에서 인정되는 바이다.

문장의 전파는 제 2차 십자군 원정 직후인 12세기 중엽에 활기를 띠었다. 십자군은 유럽의 여러 지방과 나라 사람들로 구성되었기에 개인, 지역 집단, 나라 등의



〈그림 2〉 문장 기본요소<sup>23)</sup>

표시가 불가피했다. 특히 전쟁 상황에 따른 기사들의 무장 상태를 고려할 때, 전장에서 아군의 식별은 쉽지 않았다.<sup>24)</sup> 더욱이 무기가 발달할수록 기사들은 중무장 하였고, 특히 투구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식별을 가능케 하는 문장의 등장은 당연하였다. 따라서 문장이라 함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방패기호”<sup>25)</sup>로서 기사의 방패에 그려진 문양과 방패를 의미한다. 차츰 문장의 역할이 뚜렷해지면서 문장의 규칙 또한 설정되었다.

23) Heraldik im Netz, 2017년 10월 3일. (<http://www.heraldik-wappen.de/viewtopic.php?t=4> 2017.10.03.)

24) 그러나 후대에 중요시되는 문장의 존재적 정당성은 식별성보다 역사성과 예술성에 두어짐으로써, 특히 연구에 있어서 문장의 역사와 그 예술성이 부각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슈튀켈베르크는, 방패와 투구를 장식하려는 예술적 욕구에서 문장이 생성되었고 여기에 지배자들을 위한 식별성이 요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E. A. Stückelberg, *DAS WAPPEN IN KUNST UND GEWERBE*, ZÜRICH, 1901, p. 1. 참조.

25) Václav v. Filip, op. cit., p. 48. 문장 연구는 역사학의 보조학문으로 분류된다. 중세 이후 문장은 유럽 전역에서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지만, 그 연구는 학계에서보다 애호가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 왔을 정도로 유럽 문화권에서조차 간과되어 왔다. 이것은 문장학회(Heraldry Society)의 설립이 1950년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설명되며, 오랫동안 유럽 문장학회의 회장이자 문장학의 입문서를 쓴 갈브레스(Donald Galbreath, 1884-1949)가 스코틀랜드의 치과의사였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색, 형태 또는 표현에 의한 하나의 기호이거나 하나의 상징이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실제로 오직 방패 위에만 표현되었고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대개 문장의 기본요소를 이루는 부분은 방패, 장식을 단 투구 및 투구덮개이며, 덧붙이자면 방패 받침대, 직위표시, 표어 및 전투구호 등이다. 이런 규칙에 제외된 다른 모든 기호들은 문장에 속하지 않는다.”<sup>26)</sup>

이런 맥락에서 문장은 이전 시대에 많이 사용된 군기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개인의 식별표시로서 문장이나 그와 같은 모티브가 군기에 이미 관습적으로 자주 그려졌기 때문이다.<sup>27)</sup> 아울러 전장에서 투구를 착용한 군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함성의 경우, 주변에서 지르는 함성을 듣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함성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 대안으로 청각보다 시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별 공동기호가 요구되었으며 시각적 효과를 통해 신속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문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sup>28)</sup>

이런 과정을 통해 발전하게 된 문장은 흔히 기하학적 형상으로 구성된 ‘도형 형상(die Heroldsbilder/Heroldsstücke/Heroldsfiguren)’과 ‘일반 형상(die gemeinen Figuren)’의 두 가지 범주로 유형화 된다.<sup>29)</sup> 도형 형상은 기하학

26) Ibid.

27) Gustav A. Seyler, op. cit., p. 76.

28) Václav v. Filip, op. cit., p. 17. “전투에서 군대가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이용하였다. 그 중 하나가 함성이다. 이것은 항상 사용되었으며 전투의 소용돌이에서 투구로 인해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 두 번째로 봉건영주들은 군인들을 군기 아래 집합시켰다. 세 번째로 문장의 제복과 방패가 공동의 기호가 되었다. 봉건영주의 기사들 각 개인은 버너의 기호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사들은 이 기호들을 변형시켰다. 일부는 모양을 고치고 일부는 새로운 기호를 채택함으로써. 개인 문장이 고안되었다.”

29) Carl von Meyer는 『Heraldisches ABC Buch』에서 문장의 범주를 셋으로 나누고, 도형 형상과 일반 형상 외에 마크와 기호를 추가하였다. 마크와 기호는 다시 자연적인 형상, 인위적인 형상 및 허구적 내지 환상적 형상으로 구분하였다. Carl von Meyer, *Heraldisches ABC Buch das ist Wesen und Begriff der wissenschaftlichen Heraldik, ihre Geschichte, Literatur, Theorie und Praxis*, München, 1857, p. 237.



〈그림 3〉 문장 분류<sup>31)</sup>

〈그림 4〉 리히텐슈타인의 국가문장<sup>32)</sup>

적 분할에 기반을 둔 문장 형상이며, 일반 형상은 사람을 비롯해서 다양한 동물, 다양한 식물 및 사물을 모두 포괄하는 문장 형상이다. 중요한 것은, 형상들이 저마다 고유한 의미와 상징을 갖더라도 잘 보이도록 단순해야 하고 그 특징을 과장해야 한다는 점이다.<sup>30)</sup> 이로써 명확하고 뚜렷하게 되어 식별이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장이 발달하면서 중첩되는 의미를 형식화하기 위해, 평면분할 된 하나의 문장 위에 여러 문장들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문장은 그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결합한 형상에 따라 신분, 권위, 통제 및 장식에 이르기까지 중세 사회문화 전반을 읽어낼 수 있는 문화 융합체가 되었다.

30) Václav v. Filip, op. cit., p. 26. 특히 각 나라들의 역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통의 기독교 문화에 근거해서 여러 나라에서 동일한 문장들도 있다. 이를테면 쌍두독수리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에서, 백합문장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 흔히 발견된다.

31) Grundzüge der Heraldik, Förderkreis Heimatkunde Tettang, 2017년 9월 3일. (<http://www.foerdkreis-heimatkunde.de/geschichte/wappen-in-tettang/grundzuege-der-heraldik.php> 2017.09.03.).

32) Liechtenstein, From Wikipedia, 2018년 4월 2일 ([https://de.wikipedia.org/wiki/Haus\\_Liechtenstein](https://de.wikipedia.org/wiki/Haus_Liechtenstein) 2018.04.02.).

### Ⅲ. 도형 형상과 색의 상호결정성

문장 연구에서 단연 선호되는 것은 일반 형상 연구이다. 도상 형상의 경우 단순히 기하학적인 선으로 표시될 뿐이어서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sup>33)</sup> 게다가 도형 형상은 방패를 단순한 양식으로 채색한 것으로써 가장 오래된 문장 형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의를 표하게 되는 형상의 의미로서 ‘Ehrenstücken’으로 지칭되기도 했다.<sup>34)</sup> 그러나 이 용어는 오늘날 사용되지 않고 있다.

비록 단순하고 소박하기 때문에 연구가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지만, 도형 형상은 기하학적인 분할을 통해 방패와 문장을 틀 지우는 기반을 이룬다. 도형 형상들은 방패라는 제한된 공간이라도 직선, 사선, 뾰족선 등을 통해 그 크기에 따라 1/2, 1/3, 1/4 등의 분할로 방패 위에 다양한 표현을 가능케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슈티켈베르크는 도형 형상을 “선의 형상(Lineare Bilder)”<sup>35)</sup>이라고도 했다. 선을 통한 방패 공간의 분할은 기하학적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식화와 자유로운 색채의 선택”에서 무한한 상상력이 허용됨으로써 창의성은 보장되었다.<sup>36)</sup> 이를테면 평면의 분할은 비례에 따라 구성되었고 그것은 색에 의해 확정되었다. 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일반 형상으로 표시될 수도 있었다. 이로써 문장은 양식화되었다.

도형 형상 문장은 <그림 5>에서 제시되듯이 선으로 면을 기하학적으로 분할하고 다양한 면 분할의 변형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변형은 중세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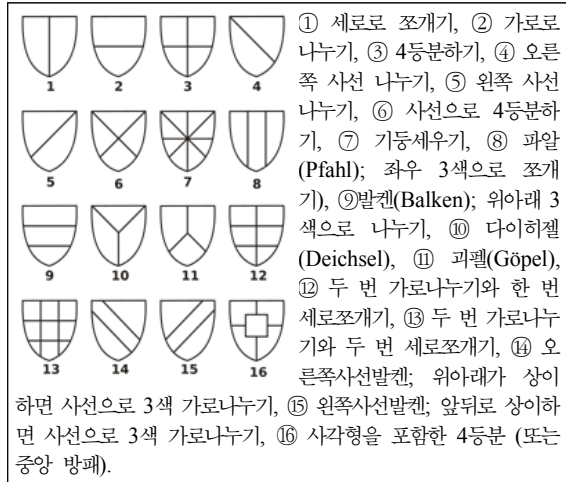
33) Hermann von Hoverden, op. cit., p. 4.

34) 오늘날에는 도형 형상을 ‘Ehrenstücke’으로도 지칭하는 연구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명칭을 사용한 예는 19세기 중후반에 프리드리히 폰 뷔스와 카를 폰 마이어의 저술에서 찾을 수 있다. Carl von Meyer, op. cit., pp. 237; Friedrich von Wyss, op. cit., p. 14.

35) E. A. Stüchelberg, op. cit., p. 30.

36) Ibid., p. 27.

의 발전에 따라 계층이 분화되고 서열화될수록 복잡해져서, 여러 개의 문장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는가 하면 분할된 형상 위에 다시 간단한 기하학 도형들이 더 그려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따라 절제된 듯 구성된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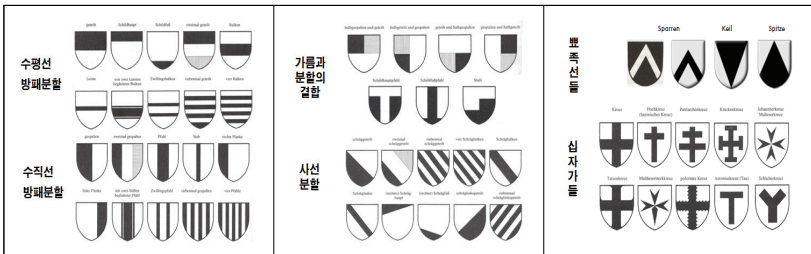
〈그림 5〉 방패의 평면 나누기와 쪼개기

들은 무엇보다도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했으며, 이것은 수학적 논리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수학적 논리란 선과 면의 비례를 의미한다. 방패의 제한된 평면 위에서 분할된 면들의 균형을 위해 선의 절제된 비례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일정하고도 다양한 형태들이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비례는 부분과 부분 간 또는 부분과 전체 간의 크기 관계를 뜻하며, 하나의 방패 공간이 선을 통해 파생되는 다른 공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배치의 효율을 높여준다.<sup>37)</sup> 방패의 평면은 선과 면의 비례에 따라 일정

37) 비례에 관한 생각은 시대마다 다르다.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수학적 양으로서의 비례가 유의미했다면, 중세에는 질적인 비례가 중시되었으며 고대와는 다른 비례의 기준을 따랐다. “숫자의 산술적 개념에서 여러 지점들 간의 비례에 대한 기하학적, 공간적 개념으로 이행하려는 생각은 피타고라스에게서 유래”하였고, 4원소의 비례관계로 설명한 세계에 대한 수학적 개념은 플라톤에게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세에 이르면 이와 달리 성당의 건축가들에 의해 비례의 원리는 고딕 건축에서 그렇듯이 상징적이고 신비한 암시의 형식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중세 시대의 기하학적 양식에 나타난 비례는 일반적으로 양적인 의미에서보다 질적인 의미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움베르토 에코 저, 이현경 역, 『미의 역사』, 열린책들, 2005, 64~71쪽, 90~97쪽 참조.

한 기본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정확한 재구성도 가능하다. 공간을 가로와 세로로 쪼개고 나누기 위해 수직, 수평, 사선 그리고 뿔족선 및 그 각각의 선들 간의 결합 등이 활용되었으며, 이로써 가장 단순한 선에서 복잡한 선에 이르기까지 비례에 따라 구성되는 형상들이 도형 형상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도형 형상의 범주를 세세하게 기술한 카를 폰 마이어는 다음의 3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첫째, 문장학에서 자유로운 방패의 경우로서 선이 없는 단색의 방패들, 둘째, 한 가지 색이나 여러 가지 색을 기반으로 하나의 선이나 여러 개의 곧거나 굽은 선에 의한 방패 분할들, 셋째, 본래 무형이지만 평면에 형상을 그려 넣은 문장 형상들로서 그것은 곧거나 굽은 선에 의한 기하학적 경계를 통해서만 구성되며 다양한 색채들에 의해서만 면과 대조를 이룬다.”<sup>38)</sup> 이 범주에 속하는 도형 형상은 오늘날에서 간단히 시각화 하여 아래 <그림 6>처럼 제시되고 있다.



<그림 6> 기하학적 도형 형상들<sup>39)</sup>

38) Carl von Meyer, op. cit., p. 237, “Zu den Heroldsfiguren oder Ehrenstücke gehören nach meiner Ansicht: 1) Die heraldisch-ledugeb, d. h. die ganz leerenj, einfarbigen Schilde. 2) Alle Theilungen oder Zerlegungen eines Schildes durch eine oder mehrerem geade oder krumme Linie in zwei oder mehrere Farben. 3) Alle jene flachen (eigentlich körperlosen) figürlichen Wappenbilder, welche ebenfalls nur durch geometrische Abgränzung mittelst gerade oder krommer Linien gebildet wurden, und die also blos durch die Verschiedenheit der Tinktur vom Felde sich abheben.”

39) Farben, Metalle und Heroldsbilder 2018년 4월 2일 (<http://www.spaetmittelalter.uni-hamburg.de/spaetmittelalter/propaedeutik/hilfswissenschaften/heraldik/farben.html>)

도형 형상의 범주에서 이러한 형상들 외에도 변형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형태면에서 도형 형상 범주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십자가들이 그 한 예이다. 바클라프 포크 필립은 십자가들을 특별한 설명 없이 도형 형상의 범주에 포함시켰다.<sup>40)</sup> 그러나 19세기에 편찬된 일반인들을 위한 사전에서 십자가들은 도형 형상으로도 일반 형상으로도 모두 포함되었다.<sup>41)</sup> 이것의 해명은 오늘날 스위스의 문장과 군기 재단(Stiftung Schweizer Wappen und Fahnen)의 재단장인 요제프 멜히오르 갈리커(Joseph Melchior Galliker)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도형 형상과 일반 형상의 2 범주로 분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들을 별도로 분리했다. 그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되었기에 도형 형상과 일반 형상 모두에 포함되며, 방패의 테두리까지 선이 이어졌다면 그것은 도형 형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sup>42)</sup> 또한 비엔나 대학의 역사학자였던 게오르크 샤이벨라이트 역시 십자가들을 도형 형상과 일반 형상에 이어 별도로 범주화 하였다.<sup>43)</sup> 이렇듯 일반 형상들의 범주와 달리 선분할의 기반으로 구성되는 형상들의 범주화는 여전히 열려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도형 형상에서 선의 변화와 선들의 결합을 통해 면이 구성되고 다양한 변형이 허용되더라도 선의 분할을 확정짓는 것은 색이다. 문장학에서 색은 은색과 금색을 비롯하여 주로 검정, 파랑, 빨강, 녹색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색의 규칙은 엄격하고 제한적이었으며, 색이 덧입혀진 다거나 금색과 은색이 겹치는 것은 금지되었다. 방패의 표면 위에서 형상

---

2018.04.02.)

40) Václav v. Filip, op. cit., p. 55. 참조.

41) *Illustrierte Konversations-Lexikon : vergleichendes Nachschlagebuch für den täglichen Gebrauch. Hausschatz für das deutsche Volk und "Orbis pictus" für die studierende Jugend*, Leipzig; Berlin: Otto Spamer, 1870, p. 1360.

42) Vgl. *Merkblätter des Bundesamtes für Bevölkerungsschutz, Kulturgüterschutz*(PDF)

43) Vgl. Goerg Scheibelreiter, *Haraldik*,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012, pp. 84~86.

은 두 가지 색상으로 양식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패에 그려진 양식화된 기호는 단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함으로써 강조된다. 형상 없는 문장은 있어도 색 없는 문장은 있을 수 없다.”<sup>44)</sup> 이렇듯 도형 형상의 기하학적인 선 분할은 선 자체보다 색을 기반으로 한 도형으로 완결된 것이다. 그러나 초기 문장에서는 인장, 무기, 무덤 등의 경우 색이 늘 인지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sup>45)</sup>

방패의 채색은 단 두 가지의 색을 통해 양식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색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우선시 하였고 색마다 가진 고유한 의미가 활용되었다. “색은 생각을 담고 전달”<sup>46)</sup>하는 것이기에 12세기 사람들은 “흰색은 순결과 결백함을, 검은색은 금욕, 회개, 비판율, 빨간색은 그리스도가 흘린 피, 정열, 순교, 희생, 신적인 사랑을 의미”<sup>47)</sup>했다. 색의 사용은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따라서 색채들은 중세 문화에 반영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이렇게 표현된 색은 문화마다 상이한 집단 의식을 반영하였다. 이를테면 미셸 파스투로(Michel Pastoureau)가 자신의 저서 『파랑의 역사(Blue: Histoire d'une couleur)』에서 논구했듯이 프랑스에서는 파랑과 금색이 선호되었고, 파랑의 경우 1790년 6월에 프랑스 “국가를 상징하는 청색”<sup>48)</sup>으로 선포되었으며, 반면에 독일에서는 검정과 금색이 선호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독일 국기에 반영되었다.<sup>49)</sup>

중세인들은 특히 색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기독교적 질서와 가치를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하여 표현하였다. 단 두 가지 색을 사용하도록 정한

44) Václav v. Filip, op. cit., p. 23.

45) Otfried Neubecker, op. cit., p. 86.

46) 미셸 파스투로 저, 고봉만 역, 『파랑의 역사』, 민음사, 2017, 19쪽.

47) 위의 책, 59쪽.

48) 위의 책, 321쪽.

49) 프랑스에서 청색의 역사는 12-14세기에 문장의 바탕색으로 사용된 이래로 선호되면서, 왕조의 문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파리국민방위대 및 지방 민병들의 군복 색으로도 애호되었다. 이는 1790년 6월에 ‘국가를 상징하는 청색’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면서 청색은 프랑스의 상징색이 되었다. 위의 책, 305~327쪽 참조.

문장 규칙에 근거해서 색의 의미는 선과 악, 신과 사탄 등 이분법적 사고와 연결되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상징적인 종교적 의미는 색으로 형상화 되었고, 더 나아가 두 가지 색의 사용은 밝은 색은 형상으로 어두운 색은 배경으로 또는 밝은 색이 배경이면 어두운 색은 형상으로 표현되는 상호결정적인 패턴으로 전개되어, 그 자체로 선의 분할을 이루었다.<sup>50)</sup>

#### IV. 도형 형상의 특징과 그 의미

도형 형상은 제작자의 상상력이 추가되면서 다양한 형상들의 변형으로 문장을 풍부하게 한다. 그러나 그 기반은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이며,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도형 형상은 기하학적 형상으로도 지칭되고 있다. 단순한 선의 분할로 인식되어 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도형 형상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 때는 독일에서 매우 발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도형 형상의 특징이다. 그 특징은 역시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도형 형상의 존재적 의미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도형 형상의 기하학적 특징이 언급될 수 있다. 기하학적이란 함은 공간보다 형태에 주목하는 표현방식이다. 선과 면의 간단한 논리로 구성되는 기하학은 그 자체로 단순하기에 기하학적 대상들과 기하학적 분할은 도형 형상으로 하여금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지 않는다. 비록 일반 형상처럼 풍부한 이야기를 가질 수는 없어도, 사자, 독수리, 장미 같이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해있는 일반 형상들과는 달리 구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도형 형상들은 일반 형상들에 비해 새롭다.

이런 기하학적 도형 형상의 두 번째 특징은 단연코 단순성에 두어진

50) Václav v. Filip, op. cit., p. 21.

다. 이 단순성은 선의 분할을 통해 드러내야 할 명확성과 가시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국에는 인식을 열어준다.<sup>51)</sup> 단순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군과 아군을 신속하게 식별해야 하는 전장의 현실에서 요구되는 실제적인 필요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있다. 그러기에 역사학자들은 도형 형상의 시각적 단순성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기하학적 형상의 시각적 단순성은 직관적으로 이해됨으로써 그 어떤 파생적 분석이나 해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명확하게 제시되는 수학적 비례에 따른 기하학적 도형 형상은 조형의 기본요소인 선을 통해 면의 형상을 구성하면서 개별적인 형상 이면에 어떤 의미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도형 형상의 특징은 탈재현성이다. 고대 이래로 재현주의적 관점에서 기하학을 통해 우주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중세 문장의 기하학적 도형은 세계를 담아낼 유사성도 구체적인 대상을 드러낼 표상성도 매개할 대상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재현적 의미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sup>52)</sup> 그러므로 “문장 자체가 재현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상징과 식별을 위해 사용된 만큼”<sup>53)</sup> 도형 형상은 수직선이든지 수평선이든지, 뾰족선이든지 사선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직관적으로 수용될 뿐 공통감에 기반을 둔 개별적인 해석을 불가하다. 기하학적 도형은 사람들 간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와 그것을 길게 풀어낼 수 있는 경험의 의미 세계로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형 형상 문장은 세속적인 주변 사물들로 구성되는 일반 형상과 반대로 추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징은 오히려 이야기를 통해 풍요로운 일상문화와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야기로 풍성한 일반 형상에 밀려나 약화될 수

51) E. A. Stükelberg, op. cit., p. 30.

52) 채운, 『재현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28~36쪽 참조.

53) 미셸 파스투로 저, 고봉만 역, 『과량의 역사』, 313쪽.

밖에 없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추상성이 선호되기도 한다.

## V. 결 론

오늘날 문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것은 첨단기술의 융합에 힘입은 미디어 발달의 가속화로 인해 정보의 습득과 습득한 정보의 재구성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며, 시각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과거의 보고를 현재로 불러내어 문화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양의 중세 문화는 문화콘텐츠의 현대적 외양으로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기사문화가 있고 문장이 있다.

문장의 한 범주로서 도형 형상은 문장 구성에서 기반을 이루면서도 사용에 있어서나 연구에 있어서나 일반 형상 문장에 비해 문장 연구에서 여전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탈재현성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도형 형상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하학적 형상들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기하학적 도형의 특성상 경험 세계와 무관하여 특별히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형 형상이 문장 구성에서 기본틀을 이루며 선 분할을 통해 일반 형상 문장의 다양화와 복합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세가 끝나고 근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면 도형 형상의 기하학적 특징은 예술의 영역에서부터 디자인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세 후기에 이미 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공간 인식이 확대되고 인간중심의 세계관이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들은 실용적인 세계관에 의해 실제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속적인 이야기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중세의 문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밀려나면서 시각적 추상성에만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문장의 틀을 벗은 기하학적 도형 형상은 향후 모더니즘 회화에서 보다 더 풍부한 추상적 형상미로 거듭난다.

• 참고문헌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Liechtenstein#/media/File:Staatswappen-Liechtensteins.svg> (2018.04.02.).

<http://www.foerderkreis-heimatkunde.de/images/0-abb-2.jpg> (2018.04.02.).

<http://www.heraldik-wappen.de/viewtopic.php?t=4> (2017.10.03.).

<http://www.spaetmittelalter.uni-hamburg.de/spaetmittelalter/propaedeutik/hilfswissensschaften/heraldik/farben.html> (2018.04.02.).

<http://www.rabanusarchiv.de/wappenkunde.html> (2018.01.05.).

<https://en.wikipedia.org/wiki/Amphora> (2018.04.02.).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ormans\\_Bayeux.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ormans_Bayeux.jpg) (2017.10.03.).

Merkblätter des Bundesamtes für Bevölkerungsschutz, Kulturgüterschutz(PDF)

<연구논저>

미셸 파스투로 저, 고봉만 역, 『파랑의 역사』, 민음사, 2017.

양희석, 『예술철학, 상』, 자유문고, 1980.

움베르토 에코 저, 이현경 역, 『미의 역사』, 열린책들, 2005.

이종우 편저, 『기하학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 경문사, 2004.

채 윤, 『재현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타키투스 저, 천병희 역, 『게르마니아』, 도서출판 숲, 2017.

플라톤 저, 조우현 역, 『국가』, 삼성출판사, 1993.

하마모토 다카시 저, 박재현 역, 『문장으로 보는 유럽사』, 달과소, 2004.

호메로스 저, 천병희 역, 『일리아스』, 도서출판 숲, 2017.

Filip, Václav v., *Einführung in die Heraldik*, Stuttgart, 2000.

Gustav A. Seyler, *Geschichte der Heraldik*, Nürnberg, 1885.

- Hoverden, Hermann von, *Zur Wappen-Symbolik: über die Bedeutung der Herold-Stücke*, München, 1870.
- Huthwelker, Thorsten, *Die Darstellung des Rangs in Wappen und Wappenrollen des späten Mittelalters*, Ostfildern: Thorbecke Verlag, 2013.
- Kluge, Friedrich,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arb. vom Elmar Seebold*, Berlin: NY, 1999.
- Maxine, “*Das Wappen als Medium adliger Repräsentation im Hoch- und Spätmittelalter*”, 2014. (<https://geschichte-wissen.de/blog/heraldik-wappen-adel/>, 2018.7.1.).
- Neubecker, Ottfried, *Heraldik. Ihr Ursprung, Sinn und Wert*, Frankfurt/M.: Wolfgang Krüger Verlag, 1977.
- Stükelberg, Ernst Alfred, *DAS WAPPEN IN KUNST UND GEWERBE*, ZÜRICH, 1901.
- Wyss, Friedrich von, *Ursprung und Bedeutung der Wappen mit Bezug auf eine alte Wappenrolle*, Zürich, 1847.

## A Study on Ordinaries in Medieval European Heraldry

Kim, Youn Sun\*

The coat of arms is closely related to feudalism in Western medieval society, especially knightly cultures. It is not only the mark of the knights in the battlefield but also the symbol of recognition and authority in the medieval society. As the status of the knights is dismantled, the coat of arms has expanded into the life of the commoners. It symbolizes the identity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ies, rather than exposing the aspects of social discrimination.

Since the 19th century, the coat of arms has been studied in the two categories such as ordinary and general. Ordinary heraldries are composed of lines and facets, and the general ones comprise of the humans and the natural objects. Due to their spatial restrictions of being used for shields, however, heraldries have followed the strict rules to deliver compressive meanings, thus creating ordinaries and general heraldries. Studies on these heraldries have become meaningful when the representation of medieval cultures flourishes in the field of the cultural industry toda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 geometric shapes represented in medieval European heraldry. Geometric shapes which have been explained within the rules of heraldry are not expanded into general research on figures only. It is not easy to trace and analyze the meanings of

---

\* Lecturer on German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

figures.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basic meanings and symbols on figures in order to help contribute to decoding the ordinaries of medieval European heraldry. For this purpose, I have studied the origin and the development of heraldry, the classification of herald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ne segment and color, an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s of the ordinaries.

Key words: Heraldry, general figures, ordinaries, geometric figures,  
color

필자 E-Mail: [bisah\\_de@hanmail.net](mailto:bisah_de@hanmail.net)

투고일: 2018년 07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8년 07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8년 08월 02일